

국보 3·보물 16건...송광사 보물창고 열렸다

성보박물관 확장 개관...6월 4일까지 특별전

불화·유물 등 120여점 선보여

국보 '목조삼존불감' 등 5월 3일까지 전시



국보 제 314호 '화엄경변상도'



국보 제 42호 '목조삼존불감'

약 200년 역사를 지닌 순천 송광사 성보박물관은 국보를 포함한 유물 2만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보물창고다. 송광사를 승보(僧寶)사찰로 부르는 이유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5월10일 송광사가 불에 타 없어졌을 때 1959년 스님들은 대웅전 보다도 박물관을 먼저 복구하며 중시했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작은 규모로 인해 많은 유물을 전시하기 힘들었다.

송광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문화재를 선보이기 위해 성보박물관을 확장 개관했다. 2011년부터 문화재청, 전남도, 순천시 지원을 받아 8000㎡ 규모 신축 건물을 완공, 지난 22일 개관식을 가졌다.

6월4일까지 열리는 개관 특별전 '새롭게 문을 열다!'는 송광사가 보유한 국보·보물 등을 한눈에 둘러볼 수 있는 전시다. 일반에 거의 공개하지 않았던 '목조삼존불감'(국보 제42호)·'화엄경변상도'(국보 제314호) 등 국보 3건, 보물 16건, 등록문화재 2건 등 총 120여점을 선보인다.

1전시실에서는 '송광사의 역사'를 주제로 보물 제 572호 '수선사형지기'와 노비 문서를 비롯해 송광사 창건과 중창 역사, 조계산에서의 불교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유물을 전시한다.

2전시실은 '법, 불'을 주제로 보물 제 175호 '경패', 보물 제 204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삼현원찬과문' 등 송광사 소장 경전과 경판, 관련 유물을 공개한다. 보물 제 1467호 '송광사 소조 사천왕상 복장 유물' 등 다양한 보물들을 만날 수 있다

3전시실은 '불, 승'을 주제로 '화엄경변상도'와 '영

산전 팔상탱'(보물 제 1368호) 등 불화들을 전시한다. 화엄경변상도는 1770년 승려 화가 12명이 무등산에서 만들어 송광사로 옮긴 불화다. 부처가 화엄경을 설파할 때 7곳에서 9번의 모임을 했다는 '칠처구회'(七處九會)를 그림으로 표현했다.

송광사 근대 고승인 효봉스님, 구산스님 관련 유물과 송광사 3대 명불 중 하나인 '능견난사'(능으로 만든 공양그릇)도 배치한다.

4전시실(16국사)은 송광사의 정신인 16국사를 소개하는 자리다.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국보 '목조삼존불감'(작은 불상을 모신 집), 고려 고종 3년(1216) 송광사에 머물던 국사 해심이 왕에게서 받은 문서인 '해심고신제서'(국보 제 43호), '티베트문법지'(보물 제 1376호) 등을 볼 수 있다. 또 모형을 통해 국보 제 56호 국사전과 건축양식을 살펴본다.

그밖에 기획전시실에서는 성보박물관 역사와 성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스님들의 정신을 이야기한다. 또 1995년부터 운영했던 옛성보박물관인 성보각과 관련 유물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국보 제 314호 '화엄경변상도'와 국보 제 42호 '목조삼존불감'은 5월3일까지만 전시될 예정이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한편 6월23일부터는 도난 당한지 40여 년 만에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환수한 '오불도'를 공개하는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1-755-04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8000㎡ 규모로 신축한 송광사 성보박물관

유·스퀘어 청년작가 안지현 개인전



'나의 아득한 서식지'

27일까지 금호갤러리

지난해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 공모에 선정된 안지현 작가가 금호갤러리에서 27일까지 개인전 'STAY IN DRAWING'을 연다.

안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을 자기고백적으로 풀어낸 작품을 선보인다.

그는 대학졸업 직후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 이내 곧 한국으로 돌아온 경험이 있다. 꿈을 안고 떠났지만 막상 현실은 외로움과 두려움만 가득했다.

유쾌하지 않은 기억을 작품 주제로 삼은 안 작가는 밀폐된 공간을 청록색 색채를 이용해 표현한다. 스스로 만들어낸 안식처이자 상상의 도피처이다.

작품 '나의 아득한 서식지'는 작가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작이다. 사각으로 두른 담장 안을 초록빛 풀이 포근하게 덮고 있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는 흐트러진 침대가 놓여있거나 옆으로 누운 나무가 등장하며 정신적 방황이 느껴진다.

드로잉 작품도 전시한다. 꽃봉오리가 올라온 등배나무, 숲 속 전경 등 주로 식물 소재다.

조선대 서양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안씨는 지난해 무각가 로터스갤러리 신인작가공모전에 선정되며 개인전을 가졌다. 광주시립미술관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열린 단체전에 참여했다. 문의 062-360-843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윤동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별·부끄러움'

우리나라 독자들이 윤동주(1917~1945) 시인을 떠올릴 때 가장 많이 연상하는 이미지는 '별'과 '부끄러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김용교 숙명여대 교수가 인터넷 이용자 1086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김 교수 설문문에 따르면 윤동주 시인 하면 떠오르는 단어 이미지로 '별'(312명)이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 '부끄러움'(249명), '성찰'(78명)이 뒤를 이었다.

이는 독자들이 윤동주 작품 가운데 별이 등장하는 시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장 좋아하는 시로 응답자의 667명이 '서시', 384명이 '별 헤는 밤'을 들었다. 특히 '별 헤는 밤'에는 별이 12번, '서시'에도 2번 등장한다. 가장 좋아하는 구절에는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96명),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73명),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73명) 등이 뽑혔다. 또한 한국문학사에서 윤동주만큼 부끄러움에 대해 감수성이 예민했던 시인이 없을 만큼 작품에 '부끄러움'을 매개로 한 시어가 많이 등장한다. '참회록', '서시', '쉽게 쓰여진 시', '별 헤는 밤'에 투영된 부끄러움이 그 예다.

윤동주는 어떤 시인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자기성찰하고 실천을 꿈꾸었던 시인'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529명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자기성찰의 시인'(275명)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교과서에서 언급됐던 '민족시인'(79명), '저항시인'(89명) 등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박성천기자 skypark@연합뉴스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문화담론 계간지 '창' 38호 발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이 발행하는 문화담론 계간지 '창' 38호가 나왔다. 이번호 '특집 기획'은 문화도시 광주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담았다. '조성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의 정상화'(전득연 전남대 교수), '문화분권과 문화민주주의'(김기근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문화콘텐츠 산업 활성화 방안'(송진희 호남대 예술대학장) 등이다.

'문화진단' 코너에서는 서순복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가 '지역문화진흥법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문화 지원정책 변화, 류영국 지오게이트 대표가 '광주폴리 1, 2차와 3차 그리고'를 통해 지역문화 현안을 짚는다. '문화인 탐구생활'에서는 5·18 고등학생 시민군에서 다류사작가로서의 삶을 견고하고 있는 김향득씨를 소개한다. '문화현장'에서는 김선출 전남대 민주동우회 상임집행위원의 '세월에서 오월로', 이천영

새날학교 교장의 '광주 고려인마을 방문의 해' 등을 실었다. 그밖에 '문화특독'에서는 강동완 조선대 총장의 'CU Again 7만2천 프로젝트'와 서연정 시인의 '새봄을 축하합니다', 허달용 광주민예총 회장의 '습습한 우리시대의 문화를 생각하며', 전고필 대인예술시장 총감독의 '지역인력 대응 설계 지금하지 않으면' 등을 다뤘다. '창'은 홈페이지(www.rcef.or.kr)에서도 볼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테라스에서 즐기는 치맥한잔!!

치맥한잔

오늘은 치킨과 맥주가 만나는 날

포장가능!!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예약 및 문의| 061-392-2114